

#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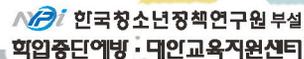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일시 | 2018. 6. 15.(금) 10:30 ~ 15:00

장소 | 신도림 쉐라톤디큐브시티 호텔(6층 그랜드볼룸)

주최 |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포럼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 세부 일정

시간		주요일정	발표자
10:30-11:00	30'	등록	
11:00-11:10	10'	개회식	개회사: 윤철경 소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환영사: 배동인 과장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b>제 1세션: 주제 발표</b>			
11:10-12:10	60'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이종태 소장 (21세기교육연구소)
12:10-13:20	70'	<b>오찬</b>	
<b>제 2세션: 지정토론 및 종합논의</b>			
13:20-14:50	90'	지정토론	하태욱 교수(건신대학교대학원) 양인영 장학사(인천교육청) 우남주 교장(울산두남중고등학교) 오흥빈 교사(대원고등학교) 정남호 교사(현도정보고등학교) 고성해 사무총장(청소년희망재단)
종합논의: 질의 및 응답			
14:50-15:00	10'	<b>폐회</b>	

※ 일정은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01. 주제발표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3  
이종태 |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 02. 토론문

- 학업중단의 원인규명과 예방, 그리고 대안..... 21  
하태욱 |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 학업중단 예방 사업 및 대안교육의 진단 및 발전 방향..... 26  
양인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에 따른 성과와 과제..... 30  
우남주 | 울산두남중고등학교 교장
- 일반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의의와 실천 반성..... 36  
오흥빈 | 대원고등학교 교사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대안교육..... 38  
정남호 | 현도정보고등학교 교사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균형잡힌 발전을 기대하며 ..... 43  
고성혜 |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 03. 부록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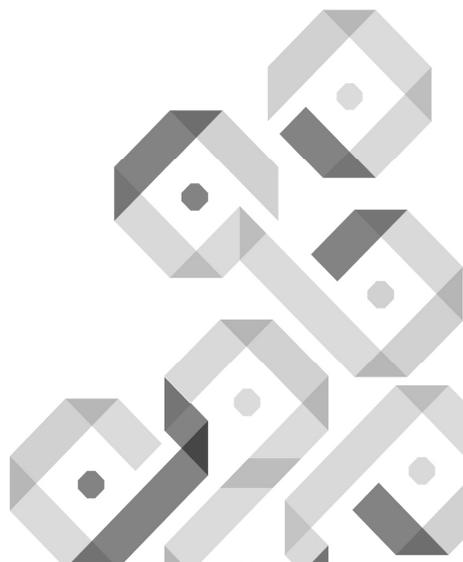
2018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 01 주제발표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이 종 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이 종 태 |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학교붕괴’라는 말이 하나의 담론 수준으로 등장한 지 20년이 되었다. 1999년 한 고등학교 교실 장면을 찍은 몰래 카메라 영상이 공중파를 타면서 회자되기 시작한 ‘학교붕괴’ 담론은 그 해 말 전교조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절정에 이르렀었다. 이후 수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교육정책 연구기관들은 이 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현실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공교육 체제 안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기존 학교들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학생 친화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혁신학교 제도가 확산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생활에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육통계에서 나타나는 ‘학업중단 학생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 감소폭은 정책 효과라기보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2000년대 진입 이후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정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음 시작은 1998년에 시작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었지만, 2001년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 대안학교 사업을 통해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시행된 각종학교 대안학교 제도에 의해 외연이 넓어졌으며, 2010년 경남 태봉고와 전북 동화중을 시작으로 한 정규학교 형 공립대안학교의 증설로 이어졌다. 2013년에는 대안교실 제도가 도입되어 대안교육이 일반 학교 안에서도 널리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런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확산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뚜렷하게 도움을 얻은 학생들도 적지 않겠지만, 거기에 들인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지는 여러 모로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하나는 개념적인 문제, 즉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목표나 내용을 불확실하게 하며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 개념적인 문제와 연동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공교육 체제의 강고한 경직성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대안교육의 충돌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개념과 그 운영 방식은 세계 최고라 할 만큼 법적 제도적으로 완고하다. 반면 대안교육은,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든, 매우 유연한 방식의 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도들은 이러한 이질성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절충 혹은 통합해야 할지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되었고, 현장은 ‘대충’ 혹은 ‘그때그때 달라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공교육 내 대안교육은 현장에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로부터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정상 궤도’를 이탈한 ‘이류 인간’으로 보려는 편견이 깊어졌다. 대다수 교사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가려고 할 때 한사코 말리고 있는 현실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와 그에 따라 공교육 내 대안교육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목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기반으로 먼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기본적인 성격 및 양자의 만남에 대한 역사적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2. 공교육의 성격과 시대변화의 도전

### 가. 공교육 제도의 기본 성격

‘공교육’(public education)은 논의의 의도나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공공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지만 때로 그것을 국가의 관여 정도로 대체하기도 한다. 엄밀한 개념적 분석이 아닐 경우 그것은 대체로 ‘공적 기준’<sup>1)</sup>을 충족시키는 근대 학교교육 제도(이하 근대 학교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의미도 동일하다.

시기적으로 대략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그 형태가 완성된 근대 학교제도는 서구적인 근대화의 산물이다. 근대화는 경제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와 동시에 신분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 및 봉건적 왕권국가에서 근대 시민국가로의 이행을 동시에 함의한다. 이 점에서 산업사회(=시민사회)와 근대국가, 근대 학교제도(또는 근대교육)는 일란성 세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들도 공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근대 학교제도는 이전에 비해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보편교육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교육이 양반(귀족)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신분 해방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실용교육이다. 양반의 전유물 시절에는 교육 내용이 주로 철학이나 이론 등 고급 지적 유희를 위한 것(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여가교육’이라고 칭했다.)이거나 통치 기술에 관한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근대교육에서는 생산기술을 포함한 실용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셋째, 국가주도 교육이다. 이전에는 소수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는 사립학교 형태가 중심이었지만(동양에서만 예외적으로 관립학교 제도가 발달했었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근대 학교들은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국가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마지못해 떠맡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질적인 국가 구성원들을 하나의 이념 체제 안에서 통일시키고(국민 형성), 국가 유지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제도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튀세가 말처럼 하나의 ‘국가 기구’로 자리를 잡은 근대 학교제도는 자연스럽게 강제성, 획일성, 표준화(규격화)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가지게 되었다. 강제성은 의무교육(영어 compulsory education의 정확한 번역어는 강제교육) 제도로 표상된다.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개인들에게 엄격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 획일성은 학교제도가 거대한 관료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법규에 의한 운영, 계서제(階序制)와 무사성(無私性)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체제는 교육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적이고 내밀한 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료제 방식은 표준화(규격화)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교육 목표나 내용, 방법, 결과의 평가 등 교육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지 않고는 관료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존 듀이 이후 수많은 교육학자들은 근대 학교제도가 갖는 이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 왔다. 아동의 학습심리를 연구하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학교의 운영체제를 수없이 바꿔보기도 하였다. 전인교육이나 노작교육, 또는 학교장 책임경영제와 같은 고전적인 개념들은 물론 비교적 오래 된 구성주의 교육이나 홀리스틱 교육,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개별화 수업이나 거꾸로 교실, 뇌기반 학습, 메이커 교육 등은 기본적으로 근대 학교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 획일성, 표준화는 근대 학교제도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 나.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교육적 요구

1960년에 다니엘 벨이 ‘탈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90년대에는 지식기반사회라는 말로 대체되었고,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들은 본래 생산 기술의 질적 변화에 연원을 둔 것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진행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대규모 공장과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일사불란한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는 수직적인 조직과 통제, 그리고 위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탱되었다. 군대식 조직을 모방한 학교제도는 이러한 생산방식에 안성맞춤이었다. 수직적 통제에 의해 훈련된 학생들은 기업의 억압적인 노동 통제에 잘 적응했으며, 그들이 습득한 표준화된 지식은 대량생산 체제를 구동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필두로 한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하던 산업생산은 급속히 쇠퇴하고 대신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흔히 이 과정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전환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공급이 주도하던 이전의 소비 행태가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선호하는 노동자의 특성은 종래의 전문성이나 순응성에서 창의성으로 옮겨갔다. 소비자의 성향과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개혁 과정에서 유난히 개성과 창의성, 교육의 다양성이 강조된 것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체제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정치권과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학교제도의 성격(강제성, 획일성, 표준화)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제도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 요구라 해도 버리거나 변화되기 어렵다. 2세기 넘도록 수많은 학자와 교육자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마디로 패러다임의 한계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여기에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특수성이 가미되어 그 폭력성이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훨씬 노골적이었다. 80년대의 급진적인 교사 노동운동이나 90년대 초 이래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의 고공행진은 이러한 모순 구조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산업계의 요구와는 다른 이유에서 기존 체제의 질적 변화를 처절하게 요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태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와 교육계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교육개혁은 용두사미에 그쳤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학교 교육의 후진성과 내적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무기력화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탈학교화’의 진전이다. 전자의 주된 현상으로는 잠자는 교실이나 ‘학교 속의 문맹자’(엄훈, 2012), 그리고 교사집단의 소진과 ‘탈교육자 의식의 확산’<sup>2)</sup>을 꼽을 수 있다. 후자의 내용으로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이탈(‘학업중단’) 행렬과 함께 대안교육의 등장 및 확산을 꼽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겉보기에는 대안교육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 3.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만남

#### 가. 대안교육의 기원과 특징

대안교육이란 무엇이고 어떤 연유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여러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사실보다 논리적인 맥락에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대안교육의 고유한 개념이나 특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은 의미상 국가 주도의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앞서 말한 공교육의 경직성, 획일성, 표준화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 흔히 대안교육이 생태나 생명 존중, 공동체 지향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흐름 중 일부일 뿐이고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은 훨씬 더 다양하다. 유일한 공통점은 모든 사람을 붕어빵 찍어내듯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며 따라서 대개의 대안교육은 아동(학습자) 중심 교육을 추구한다.

이런 특징을 갖는 대안교육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안교육은 어느 시점에 등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의 교육행위라는 것은 본래 국가에 의해 강요되기 이전부터 개인들의 삶과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고안되고 유지되어 왔었다. 다만 그것은 대안교육이 아니고 그냥 교육이었다. 이것이 ‘대안교육’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18, 19세기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의 공교육 제도가

2) 시론적으로 써 본 표현이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학생 지도에 지친 나머지 적지 않은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견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편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 교사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어 학종 축소와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교사 단체의 태도가 그 단적인 예이다.

자리를 잡은 뒤의 일이다. 톨스토이가 나스냐 빨라냐 농장에서 빈민 자녀들을 모아 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학교였지만, 짜르의 탄압으로 문을 닫으면서 후세에 ‘대안학교’가 되었다. 사실, 근대교육 사상가의 추앙되는 루소, 페스탈로찌, 프뢰벨 등이 추구한 것도 지금의 공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의 등장으로 밀려난 ‘대안교육’이었다. 그들의 사상은 공교육 제도 안에서 실현된 적도 없고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공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학교나 공교육 제도가 매우 보편적인 반면, 대안교육(학교)은 유별나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유구한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역사에서 실존했던 학교나 교육은 대안교육 쪽에 가깝고, 지금 무소불위의 위세를 가지고 있는 공교육 제도는 길어야 300년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생소한 교육체제이기 때문이다.

#### 나.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접근

거시적으로 보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만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난스럽다. 둘 다 ‘교육’인 한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갈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 교육 선진국들에서는 양자가 별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양자가 서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이질적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안교육을 전혀 모르거나 공교육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학교’를 규정하는 강력한 법령의 존재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그 하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의무 취학’으로 바뀌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 몇 가지 하위 법령들에 의해 학생들이 다녀야 할 ‘학교’의 실체가 “일정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은 곳”으로 특정된다.<sup>3)</sup> 학교의 이러한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만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우리의 오래 된 통념을 벗어난다. 내용상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면 ‘학교’가 아니며, 아무리 학식과 덕망,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도 그러한 ‘학교’의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무학자’로 취급된다. 이런 상태에서 주로 비인가 학교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3) 실제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세한 규정이나 시설 기준 등을 꼬투리 삼아 까탈을 부리는 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수없이 사정하고 굽실거려야 한다. 인가 후에는 학교 운영의 세세한 사항까지도 간섭을 받게 된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꺼리게 되는 이유이다.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우리나라의 학교제도도 균열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두 가지 원천에서 시작되었다. 선도적인 노력은 학교 밖에서 시작되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는 입시와 성적 등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자가 충격적일 만큼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에 작은 숨통이라도 틀 요량으로 일부 사회운동가나 교사들이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일종의 프로그램 학교를 개설하였다(강태중 외, 1996). 입시에 찌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불러 내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한 것이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1995년을 계기로 하여 서로 연계활동을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는 일부 인사들이 비인가 학교 설립을 준비하여 1997년 3월에 한국 최초의 ‘간디청소년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가능함을 실천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서, 기존의 학교제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기존 학교 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었다. 2000년을 넘기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다수의 비인가 대안학교 설립으로 확산되었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지만, 학교제도 안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기본적인 동기는 만화나 자동차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흥미와 소질은 출중하면서도 입시 위주 교육(교과 중심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5·31 교육개혁 방안에 포함된 이 과제는 1996년 교육부의 ‘중도탈락예방 종합대책’으로 구체화되었고, 1년 여 후인 1998년 3월 초에 6개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개교로 결실을 맺었다. 공교육 제도 안에서 대안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이 특성화고등학교 제도는 외형상 일반 고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보통교과의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대신 아이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성화 교과’를 학교장 권한으로 개설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sup>4)</sup>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초기 대안교육 운동가들의 적극적인 조건과 참여가 있기는 했지만, 이 단계에서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공교육 관계자들이 공교육 안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기존의 공교육 방식으로 는 사실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후에나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 방식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기존의 규칙이나 지도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모색된 방법이 이들을 학교 밖의 다른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었다.<sup>5)</sup> 2001년

4) 이 내용은 1998년 2월에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교육부 장관의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침’에 담겨있었지만, 아쉽게도 법령화되지 못한 채 수차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근거가 사라진 상태이다. 현재의 대안교육 특성화교들은 ‘자율 교과’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지만, 그 연원을 모르는 교육청 실무자들에 의해 번번이 부당한 지적을 당하고 있다.

5) 실제로 이들 피위탁기관들을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2001년 서울시교육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한 이 사업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퍼져나가 지금은 모든 시도교육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다음에 언급하는 각종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다. 위탁되는 학생들은 본래의 학적을 유지한 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졸업 시까지 '위탁 대안교육 기관'에 머물며, 최소한의 교과학습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체험활동이나 상담활동 등으로 보낸다.

위탁교육 방식은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의 임시변통적 해결책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각종학교 대안학교' 제도이다. 이 제도를 만들게 된 당초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다수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제도권 내 편입이 자유로운 교육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인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실제로 인가된 학교들 중 사립은 대개 예술이나 특정 분야의 기능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공립은 주로 앞서 말한 위탁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2007년에 시행령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이 공포됨으로써 시행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18년 현재 35교(공립형 12, 사립형 23)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 방식이나 각종학교 방식은 기존의 공교육 제도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사히 졸업 자격을 취득하는 길을 제공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한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사실 이 규모로는 매년 수만 명이 학교를 떠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런 배움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처음부터 턱없이 모자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중단자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부는 새로운 대안으로 2013년부터 대안교실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것은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동시에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안교실 관련 연수 자료에 따르면, 대안교실이란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으로 정의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학교 안에서 통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따로 모아(학년별로) 대안학급을 만들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2014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대안교실을 운영한 학교가 1,542교이고 참여한 학생들이 17,949명이었다. 조사 대상 학생 중 58.5%가 자신의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고 56.2%가 결석,

청이 처음으로 시도한 위탁은 3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산하 피위탁 기관 중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수백 개에 이르는 전국의 피위탁기관들의 상당수는 고유의 대안교육 활동 없이 위탁받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지각, 조퇴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안교실 운영 학교의 수는 매년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수의 학교들이 대안교실을 꾸준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현장에서의 호응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1〉 최근 3년간 대안교실 운영 학교 현황(2017년 대안교실 연수 자료에서 인용)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고	중	초	소계	고	중	초	소계	고	중	초	소계
서울	40	31	2	73	65	34	4	103	68	34	8	110
부산	3	85	0	88	7	57	0	64	6	59	0	65
대구	6	21	2	29	7	25	6	38	0	19	11	30
인천	12	33	8	53	11	24	9	44	19	33	20	72
광주	7	14	5	26	13	12	5	30	11	14	0	25
대전	16	14	0	30	12	17	0	29	6	17	0	23
울산	4	6	3	13	6	12	7	25	6	21	7	34
세종	1	1	0	2	4	2	0	6	4	3	0	7
경기	62	129	25	216	87	153	41	281	60	181	15	256
강원	16	17	1	34	19	13	2	34	17	18	2	37
충북	11	3	1	15	13	4	3	20	8	10	2	20
충남	48	11	0	59	51	15	0	66	37	13	0	50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12	23	5	40	14	21	5	40	9	30	2	41
경북	21	14	3	38	28	22	7	57	29	31	0	60
경남	123	193	238	554	138	193	262	593	121	184	0	305
제주	10	10	0	20	10	14	0	24	9	15	0	24
합계	392	605	293	1,290	485	618	351	1,454	410	682	67	1,159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사례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상에서 꼽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정규학교 형), 위탁 대안교육기관(위탁형), 각종학교 대안학교(각종학교 형), 대안교실 제도(대안교실 형)의 네 가지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존의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길을 통하여 공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업 중단숙려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지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16년에 시작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지원 사업은 위의 다른 네 가지 사업에 비견될 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개교한 곳이 대구 1곳뿐이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도적 성격으로 보아 각종학교 유형에 속하고 있어 별도의 논의를 생략한다.

## 4.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탐색

앞에서 든 공교육 내 대안교육 사례들의 실제 속내를 보면 이것들을 과연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위탁형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대안교실은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수업 도피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학교들은 위탁형과 동일한 문제를 지니거나(공립) 기능 중심의 특성화학교(사립)의 성격을 질게 가지고 있고, 정규학교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들 중에는 일반 사립학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입시중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들 통로를 통하여 견디기 어려웠던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당위적인 개념들과 연계시킴으로써 공교육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들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 가. 목적과 가치

‘목적과 가치의 측면에서 기존의 네 가지 공교육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대안교육에 부합하고 있으며, 보완할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각기 표현이나 방법은 달라도 위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 마디로 학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교육적 내용도 없이 단순히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급급한 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사례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게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채 사회에 나가는 경우와 비록 교육적인 성취가 적더라도 졸업장을 들고 나가는 경우가 아이의 인생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면 후자를 위한 노력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도 없다. 이 점에서 ‘졸업 우선’ 방침은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네 가지 프로그램들이 단순하게 참여 학생들의 ‘졸업’만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계획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과연 실제 교육활동을 통하여 그러한 방침들이 얼마나 구현될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다.

가치 차원에서 볼 때도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공통적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의 범주에 근접하고 있다.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탁형의 경우 존재 기반 자체가 학생 징벌과 관련이 있고 또 대체로 단기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 점이 다소 약해 보인다. 이 점에서, 실제로 현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위탁형 프로그램의 대안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감시와 통제 대신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자기 주도적 학습 동기를 갖도록 하는 교육 목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나. 내용과 방법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기존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대안교육에 부합하고 있으며, 보완할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용적 측면에서 대안교육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는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내용을 제공하는 가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겉으로 표방하는 내용에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으리라 짐작된다. 일반 사립학교처럼 노골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행하는 일부 특성화학교나 단지 세간의 인기를 끄는 분야의 기능 연마나 세속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부 각종학교들, 그리고 학생들의 통제나 순화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는 위탁교육기관이나 단지 흥미 위주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대안교실 등이 그 예일 것이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매사에 학생들의 자율성이 얼마나 존중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네 가지 프로그램들의 충실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네 가지 현장 모두가 학생들의 자율성 존중과는 거리가 먼 제도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육 내용과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사들 역시 기존의 교사중심 학교문화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학교의 경우 정규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공립의 경우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영자들과 교사들이 대안교육의 정서나 문화와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그 존재기반에서 오는 한계가, 그리고 대안교실은 공교육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한계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내용과 방법에서 대안성이 약하다는 것은 앞서 목적과 가치 측면에서는 선언적으로 대안교육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의 상당 부분은 공교육 제도의 틀 자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교사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로 운영 및 지원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 다. 운영 및 지원체제

운영 및 지원체제 측면에서 기존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대안교육에 부합하고 있으며, 보완할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안교육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 한 교사나 학생 누구도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학교교육의 독립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의 교육적 헌신성이다. 아쉽게도 이에 관한 한 기존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 모두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대안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 현장이 아니라서 점에서 교육적 헌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의 헌신성에 국한한다면, 일부 사립 대안학교(정규학교 포함)나 미인가 위탁교육 기관의 경우 뛰어난 실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어서 제도적인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기관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기관의 운영 주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리고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립의 경우 배정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립 위탁형과 대안교실을 담당하는 일부 비정규직교사들의 경우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공통적으로는 모든 교사들이 청소년의 특성과 교육(대안교육 포함)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5.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 가. 검토해 볼 문제들

우선, 소극적으로 볼 때 현행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업중단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공교육 제도의 운영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나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네 가지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이 ‘학업중단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달래어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는 임시방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임시방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학업 중단 예방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나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행 4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예컨대, 위탁형의 경우 징벌적 성격의 해소와 단기간의 위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인가 시설의 영세성이나 인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보인다. 소요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큰 한계라고 생각된다.

대안교실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많은 관리자들이 여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다수의 교사들 또한 이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를 맡아야 하거나 대안교실 수업 진행이 파행을 겪기도 한다. 대안교실이 하나의 독립된 학급이 아니라는 점도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물론 독립 학급은 낙인효과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문화가 정착된 학교 안에서 다른 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교실 운영이 관리자나 교사들에게 ‘귀찮은 혹’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교육활동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각종학교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 제도는 당초의 취지 자체가 앞의 두 유형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학교 대신 새로운 형식의 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학교는 현재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기존 학교의 ‘대안’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학교의 수용 능력을 키울 것인지,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공교육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학업중단 예방’을 넘어 ‘새로운 학업 세계 입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안교실 연수 자료에는 대안교실의 목적 중 하나로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연중에 입시공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학교교육 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 내용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실제로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제도는 적어도 지향점으로 볼 때 이러한 적극적 시선에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소수의 사립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규학교로서 지켜야 할 한계가 뚜렷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다양한 대안적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 각종학교 대안학교들은 전반적으로 대안교육 지향성이 낮아 보인다. 공립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풍기며, 사립은 기능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을 법적으로 '대안학교'로 명명하는 것이 옳은지는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탁형과 대안교실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해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만 2001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시도했듯이 위탁교육기관에서 졸업까지 책임을 진다든지 대안교실을 일반학급에서 완전 분리하여 '학교 안의 학교'처럼 졸업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새로운 학업세계의 입문' 과정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향후 과제

현재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다.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고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 복귀'를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정부가 모든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의무가 있다고 보면, 이 두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시적으로 말한다면,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안에 붙잡아 놓으려 하기보다는 학교 밖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학교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들의 문턱을 더 낮추고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로 먼저 이와 같은 통 큰 접근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기존 공교육 제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또는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뛰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들을 예방하려는 노력보다 기존의 학교문화와 교육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한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 본질적인 고민을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부분의 논의는 별 성과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태중·이종태·이명준(1996). **새 학교 구상 :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엄 훈(2012). **학교 속의 문맹자들**. 우리교육



## 02 토론문

- **학업중단의 원인규명과 예방, 그리고 대안: 학업중단은 누구의 탓인가?**  
하태욱 |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 **학업중단 예방 사업 및 대안교육의 진단 및 발전 방향**  
양인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에 따른 성과와 과제**  
우남주 | 울산두남중고등학교 교장
- **일반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의의와 실천 반성**  
오홍빈 | 대원고등학교 교사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대안교육**  
정남호 | 현도정보고등학교 교사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균형잡힌 발전을 기대하며**  
고성혜 |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 학업중단의 원인규명과 예방, 그리고 대안: 학업중단은 누구의 탓인가?



하 태 옥 |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해 주신 이종태 선생님의 발제에 감사를 드린다. 이종태 선생님은 대안교육 1세대 연구자로서 지난 20년 넘게 대안교육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오셨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나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제도화 방안에도 관여하셨으며, 실제로 공립 대안학교인 한울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현장을 경험하셨으니 이론과 실천을 두루 갖추신 한국 대안교육의 매우 독보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선생님의 이론적 실천적 통찰의 결과물인 발제문에 감히 반론이나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그 폭과 깊이를 쫓아가기 어렵다. 선생님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보론적인 측면에서 다만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 1. 학교의 학업독점주의는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학업중단(學業中斷)이라는 말의 한자를 있는 그대로 풀면 ‘공부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은 공교육학교를 그만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기본통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를 학업중단으로 정의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그러니 이 정의의 전제는 공교육학교가 ‘공부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고 있으며 그 공간 외에는 배움과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한마디로 하자면 ‘학교의 학업독점주의’라 할 수 있다. 물론 윤철경 외(2010)는 학업중단이 곧 교육을 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복지대책의 대상인 학업중단자들과 해외출국이나 대안학교, 취업 등의 자발적 선택자들을 구분해야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교를 ‘학업’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정상성에서 벗어난 ‘학업중단’의 현상을 ‘문제’나 ‘위기’, 그리고 ‘대책’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존재’로서의 ‘부적응아’,

‘부진아’, ‘위기청소년’에게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학업중단예방’사업은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통해서 ‘학교에 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인식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밖청소년은 초·중학교의 취학의무를 유예하였거나, 고등학교 제적·퇴학·미진학 청소년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정하는 ‘교육지원’은 다시 ‘정상적’인 공간인 초, 중, 인가대안학교 혹은 검정고시를 통한 ‘복귀(Back on the track)’를 의미한다.

이런 인식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학교가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학업의 장(場)’인가 하는 것이다. 학교붕괴가 일상화 된 한국교육의 상황에서 오히려 학교는 지적호기심이나 몰입 등 배우고 깨닫는 일(學業)로부터 학생들을 유리시킴으로써 ‘배우는 힘(學力)’ 보다는 ‘학교 다닌 이력(學歷)’만이 의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학업중단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학업중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회의 문제, 특히 학교 자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고 개인의 ‘갱생’ 및 ‘재적응’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갱생’이나 ‘재적응’ 같은 인간개조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적응아들에 대한 수용과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의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제 및 위탁대안교육 시설들은 몇몇 우수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이런 형태의 대중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자퇴를 막음으로써 일어나는 학업중단률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비판할 수 있기도 하다.

## 2. 학업중단은 누구의 탓인가?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학교의 변화다. 이종태 선생님은 ‘학교붕괴’로부터 발제문을 시작 하셨지만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의 시작점은 학교붕괴가 처음 논의되었던 1999년 훨씬 이전의 것이었다. 우리에게 1989년 개봉한 영화로 더 많이 알려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1986년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자살로부터 시작된 교육적 문제제기였다. ‘난 1등 같은 건 싫는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분. 항상 나에게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슬픈 말만 하시는 분….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에 봉사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것이 보람 있고 행복한 거잖아?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맹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이 아니다. 밝히다 밝히다 내 소중한 삶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밝혀 버릴 땐 난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떠난다.’ 이 메시지는 한국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로서 전교조 결성과

참교육 운동의 시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전쟁 이후 1958년생들에 이어 한국사회의 2차 베이비부머로 태어난 1971년생(102만 명 탄생, 2017년 기준 95만 명)들은 폭발적인 인구수에 따르는 경쟁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물의 획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연계하면서 자라났다. 같은 세대며 그 자신이 고교중퇴자였던 가수 서태지는 1994년 <교실이데아>라는 노래를 통해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 (중략) /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라고 같은 맥락에서 비판한 바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의 학업중단률은 전체 학생의 2.5%에 육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실업계 학생은 무려 3.4%나 학교를 그만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학업중단의 원인을 조사한 자료에는 1990년대까지도 질병과 가사, 품행만이 그 원인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적응’ 항목은 2000년대 들어서야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선 첫 번째로 전제할 것은 학업중단 위기의 문제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매우 오래된 문제, ‘학교교육’의 문제라는 점이다.

인종적 경제사회문화적 소수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교육개혁을 이뤄낸 미국의 메트스쿨(MET School) 운영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학업실패, 문제행동, 삶의 번고, 관심 상실 같은 것들이 사실은 표층원인(The Big Four) - 문제를 드러나는 증상과 같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 것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심층원인 The Deeper Four)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삶과 어긋나 있으며,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를 간과한 채, 지나친 규제로 움조르거나 혹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셔, 모즈카우스키, 2016)

### 3. 공교육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또 다른 질문은 ‘공교육’이 가지는 실천적 모호함에 관한 것이다. 이종태 선생님은 공교육에 대해 ‘공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대 학교교육 제도’라고 적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공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적’이다. 첫 번째로 국가가 나서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교육이다. 물론 그 개입과 확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적자금을 통해 운영된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야만 한다. 역시, 그 지원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목적은 공적인간, 즉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황원길, 2004).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공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부귀영달을 노골적으로 목적화한다. 최근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입시철

이 지나면 학교별로 대학입시 결과를 플랜카드로 선전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공적 기관인 공교육이 개인의 사적 이익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홍보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공교육이 다양한 계층, 특히 사회경제적 지표가 중간 아래쪽에 위치한 계층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정한 교육기회는 구시대적 교육을 통한 값싼 노동력의 양산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에 맞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과 내용들이 모든 계층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다. 따라서 공교육은 대안교육을 단순히 ‘비정상 청소년들의 정상화’ 수단으로 치부하여 공‘교육보안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혁신선도재’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태욱, 2018) 즉, 공교육 내 대안교육에서 하는 실천을 혁신학교의 적용을 통해 일반 학교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학교→혁신학교→일반학교 형태의 교육혁신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따라서 대안교육은 단순히 ‘완벽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문제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보완책이라기보다는 근대 학교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상황에 대한 새로운 안이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에서부터 현장 교사까지 근대 학교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과 접근법,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전 영역인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각종학교, 위탁 대안교육시설 및 대안교실의 전 영역에서 대안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갖춘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탄탄한 철학적 기반, 비전을 가진 강력하지만 민주적인 리더십, 역량과 의욕이 소통으로 재생산되는 교사공동체, 대안교육의 가치에 동의하는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서의 학부모공동체, 그리고 자발성과 대안성으로 배움과 성장을 몸으로 겪어내는 학생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없지 않다.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실험이 지원되기 보다는 제약된다는 한계가 여전히 아쉽다 하더라도, 그러나 길을 찾는 실험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길에 새로운 힘이 보태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태욱(2018). '대안교육 제도화의 흐름과 방향'. 민들레 통권 116호(2018년 3-4월).
- 하태욱(2018). '대안교육 100년을 내다보며'. 민들레 통권 115호(2018년 1-2월)
- 한국교육개발원(2016).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연구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황원길(2004). 공교육: 이념, 제도, 개혁. 원미사.

## 학업중단 예방 사업 및 대안교육의 진단 및 발전 방향



양 인 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1. 들어가며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업무를 3년 째 맡고 있다. 그 동안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 정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지정·지원,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쉼 없이 일해 왔다. 그런데 2016학년도부터 학업중단학생수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본 토론자는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사업의 현행 내용을 진단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학업중단 예방 사업 진단 및 나아갈 방향

국가차원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해 왔다. 그 내용에 대한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학생수’의 산정에 대해 살펴보자. 교육법전에서 보면 “학업중단이란 정규학교 소속자 중 비행, 질병, 가계 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현재 ‘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수’를 계수할 때에는 전체 학업중단학생수에서 질병과 해외유학, 미인정유학 등으로 인한 중단학생수를 제외한 수로 정하고 있다. 기타 중단 사유 중 대안교육, 검정고시 등을 학업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운영의 기본 골격은 교육부에서 공통안을 마련하여 제공했으나, 각 시도마다 숙려제 운영 횟수나 출석인정 기준 및 운영기관 지정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준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아직도 숙려제 기간 중 학생을 학교에 나오게 하고 의미 없이 1~2시간을 보낸 뒤 출석으로 인정하는 예도 있다. 단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사안이 미미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될 때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업중단 예방 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부 차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수 선결조건이다. 인천의 경우, 2019학년도에 학업중단예방센터를 한 곳 시범운영해 봄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이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자. 현재, 시도마다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를 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7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의 학업중단학생수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3학교 중 12학교가 학업중단학생수가 전년도와 같거나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지정이 된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본다. 2018학년도에는 보다 42개 학교를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지정을 하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하여 권역별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몇 학교의 경우는 방문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 몇몇 학교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의 형태로 부적응 몇몇 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예가 있었다.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사업은 무엇보다 단위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학업중단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 생활규정 및 선도위원회 규정을 정비한다든지, 짬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활동 등 특색사업운영으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을 꼼꼼히 살펴 상황을 분석·진단하고 학교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대안교육 진단 및 나아갈 방향

발제자의 표현처럼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흥미위주의 대안교실 운영, 학생 통제나 순화에 주안점을 두는 몇몇 위탁기관들, 세간의 인기를 끄는 기능 연마나 세속적 성공을 강조하는 각종학교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대안교육으로 인해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은 학생도 적지 않다. 한국의 대안교육이 20년이란 길지 않은 세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내 대안교실은 2013년부터 6년 째 실시되고 있다. 초기에는 우왕좌왕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제법 안정된 모습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학교 내 대안교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수긍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 대안교실을 선뜻 담당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특정 교사에 의해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도 그 교사가 전보를 할 경우 행여 자신에게 그 업무가 맡겨지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기도 한다. 이제 학교도 선생님들의 열정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사인력을 추가 배정해 주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교사는 학교 안에 작은 대안학교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 교사가 먼저 얹어 줌으로써 교육 실천에 앞장서야 할 시기라고 본다.

둘째,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는 정서·행동상의 장애가 있거나, 학교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 및 학교 폭력 및 생활규정을 어겨 선도위원회 조치 결과로 오게 되는 경우 등 일반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위탁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마다 운영의 형태는 매우 다르나 대부분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대안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일반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 위탁기관에 가보면 학생들의 얼굴이 밝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는 교직원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물론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각 시도담당자는 이 기관에 얼마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적, 교육적인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위탁기관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의 경력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기관에서 몇 해 동안 열정을 다해 대안교육을 실천하다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일반학교로 발령을 받은 경우, 경력이 인정이 안 돼(현재 위탁기관 경력 30% 인정)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힘든 환경에서 오직 학생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일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셋째, 특성화 대안학교 및 각종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살펴보자. 현재 특성화학교로 분류된 대안학교는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특성화학교와 차별된 예산 지원,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 간섭 등이 이루어져 보다 대안학교다운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힘든 경우가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담당과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종학교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각종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 차원에서 각종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편이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 관련한 법규 제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라고 본다. 등록제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및 차등화 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 4. 나가며

국가적으로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2016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 정서·행동상 관심군학생수(자상위험)가 대폭 늘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일반학교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학생들을 위한 대안마련도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다른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대안교육이 일반학교의 교육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기반 마련,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시도 상황에 맞는 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한 대안교육의 성공사례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삶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교육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실시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학생만 실시되어 현재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선택교과 시행으로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가 표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시대에도 부적응학생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빛나는 건 ‘참된 인간성’일 것이다.

##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에 따른 성과와 과제



우 남 주 | 울산두남중고등학교 교장

학생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본래의 교육이란 점에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구분은 무언가 어색하다. 그렇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우선시하는 학습자 개인중심 교육으로서의 대안교육은 공교육 학교에서도 권장되어야만 한다. 일선교육 현장에선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이 강조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선 대안교육이 가지는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이 글에서 발제자의 원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년간 교육청에 학업중단예방 사업 전개와 공립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난점과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확대와 그 성과

공교육 내 대안교육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간에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배움을 갈망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확대에 따른 그 성과는 그간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미비해 보이지만, 교육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그 효용성을 논할 수는 없다. 학생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여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역할을 해 내는 전 과정을 다 추적하여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성인으로 자립한다면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에 공교육 내 대안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간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은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이루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존의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제과 제빵이나 단순오락성 체험위주 교육으로 단기처방요소가 짙은 프로그램 전개를 벗어나 학생들이 배움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 '학교 안의 학교'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전 교직원의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합의와 적극적 협력이 있어야 하고, 전담교사 배치와 전용교실도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위탁형태의 교육을 하는 이들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학생의 학적 유지 및 단순관리 측면이 강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선 뛰어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교육의 질적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위기학생을 보호·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대안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나름의 교육적 철학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 성공사례가 적지 않으나, 역량있는 교사 확보, 교육시설 미비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 여전히 입시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편향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현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립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교육감 또는 시의회 위원들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지원이나 교육 정책이 달라지고, 교육청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대안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지원의 약화가 우려되며, 대안학교의 역량있는 교사 충원 및 교육력 강화 문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관리자가 바뀔 경우 학교 교육 비전 및 교육목표의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별로 일관된 지원체계가 구비하고, 각 대안교육기관 만의 교육이념 확립과 교육목표 등을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학업중단예방의 진정한 의미

그간의 학업중단 예방활동의 노력으로 실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는 많이 줄었다. 이것은 학업중단자들이 은둔폐쇄형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한 바 있으나 혹 숫자에 연연한 나머지 진정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따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청소년의 앞길을 막은 부작용도 없었는지 염려된다.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학교를 떠나려는 학생을 붙들어 두어 학업중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일까? 학생들이 하고 싶은 욕구, 자유롭게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로 막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학업중단예방이 학교이탈방지만을 위하는 것인지 또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학생 수를 줄이는 게 공교육의 의무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학업중단이 학교공부중단의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되며, 학업중단예방의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배움의 중단 예방을 의미한다면 학교를 떠나 자신의 배움의 길을 찾아 떠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며 올바른 진로를 찾게 도와주는 것도 교육종사자들의 바른 책무라 할 수 있다.

공교육 학교를 다니기를 그만두는 학생수를 경쟁적으로 줄이는데 안간힘을 쏟게 하는 교육청 평가를 과감히 없애고 개인의 자유로운 배움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 3.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의 필요성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강조할 때 지식기반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경제 및 사회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자질로만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복잡다난한 사회 현상과 분위기 속에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환경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이는 이전보다 더 예민할 수 밖에 없고 조그만 소음과 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전 대가족사회 또는 신분질서사회에서는 묵살되고 억눌렸던 개인의 욕구가 이제 창의성이란 이름으로 맘껏 요구하고 펼칠 수 있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인간마다 추구하는 관심이 다양한 만큼 교육과정도 다양하고 보다 자율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이수만이 선택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성도 있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도 필요하다. 몇 년 전 들은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중등학교 교육은 다양해서 심지어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배우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한 수학과 신입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중등 수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의 공식’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4. 정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요즈음은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발제자의 원고에선 ADHD나 분노조절장애, 비행 및 품행장애나 심각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지도 한계를 언급하고는 있지 않으나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아이들까지 학교가 다 담당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주변을 힘들게 하는 아이, 나이에 맞지 않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 조그마한 자극에도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참 어렵다. 그리고 ADHD나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아이들도 많다. 학교 교사와 의사가 학생들의 주의 산만한 행동을 쉽게 속단하여 약물 복용을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약물을 복용하던 아이들이 약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날 그 날 학생의 행동을 살펴서 약을

복용했는지 알아보고 챙겨줘야 하는 것도 이제 교사가 할 일이 되었다.

왜 요즘 학생들의 1/4정도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로 ADHD, 분노 조절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가? 학자에 따라선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터이지만, 옛날 자연과 더불어 뛰어노는 환경에서 자라던 성인과 비교하면 쉽게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풀피리 불고, 개울가에 장난치고 올챙이 잡으며 놀던 시절의 환경과 아파트와 콘크리트 건물 속에 자라는 아이들의 환경이 무척 다르다. 오염된 환경, 각종 소음, 디지털 스크린 문화, 빠른 비트의 음악과 게임 등 태아와 어린 아동에게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요소로 가득한 현대인의 생활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ADHD라는 용어에 익숙된 교사와 의사들로 인해 좀 독특한 아이들을 ADHD 장애 학생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개성이 강하고 좀 예민한 아이들을 다루기 힘들고 주의 산만하다는 이유로 쉽게 ADHD로 속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성향의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교사 역량도 키워야한다. 그간 ‘병원학교’라고 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긴 하였지만, 이제는 공교육 내 대안 교육에서도 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또 전자미디어에서 우리 아이들을 해방을 시켜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연 생태환경을 경험하거나 더불어 또는 혼자서도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5. 또 다른 문제 : 인력 확보

공교육 내 대안교육 각 기관에서는 나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있는 배움의 성취를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 많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무기력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학생에겐 어떤 교육적 노력도 통하지 않는다. 어찌할 수 없어 그냥 옆에 있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보살펴야 하기에 내버려 두는 도리 밖에 없다. 여기에 다양한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뒤엉켜 있는 경우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 교육적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나 젊고 활력이 넘치는 교육지도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예산의 문제나 비정규직 인력 채용 등의 문제가 뒤 따른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전문 교육인력 확보하도록 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6. 가정교육의 문제와 지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경험하는 문제는 잘못된 가정교육 문제이다. 조선의 신분 질서 사회, 일본의 압제를 겪던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동란, 경제개발에 주력하던 그 이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족해체와 가정교육의 부재는 심각해졌다. 경제적 곤란, 부모이혼, 결손가정, 가정 폭력 등으로 학생이 자라야 할 환경이 전혀 못 되는 가정도 많이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폭력성과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런 학생들에게 예절과 타인에 대한 존중배려 등 사회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 생활 습관과 태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공교육 내 대안교육에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안교육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정과 부모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치 이스라엘의 ‘히피(HIPPY - Home Instruction Program for Preschool Youngsters, 학령전 아동을 위한 가정 교육 프로그램)’라는 학령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7. 제언 및 기타

획일화된 교육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생들은 다양한 성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스템과 교육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이탈 방지만을 목표로 하는 학업중단예방에 힘쓰기보다는 배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교 밖 교육지원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보다 학생 개인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학생을 사랑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의지를 지닌 역량있는 교원 확보를 어떻게 하며, 그들의 교육적 열의를 고양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는 대안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모든 교사는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살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의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대안교육 동아리 운영 등으로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안교육을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지원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보호해야 하고 교사의 정성어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학교부적응이 아니라 사회 부적응인으로 자란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경제논리를 따져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 영재아이들에 대한 투자보다 학교부 적응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문제와 정서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단순히 문제아라고 취급하지 말고 같이 보듬어 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비사회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아이의 소중함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되면,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전개함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 일반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의의와 실천 반성



오 흥 빈 | 대원고등학교 교사

주제 발표에서 언급한 현재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의미와 가치관 그리고 지향해야 할 정체성 그리고 정책 방향, 극복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일반고 교사로서 실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해본 경험자 입장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으로서 갖는 고유한 의미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상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정리하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이 다른 유형의 공교육 내 대안교육 형태와 구별되는 의의와 가치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학교 부적응 혹은 학업중단 위험군 학생들을 학교 스스로 끌어안고 예방 혹은 치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학생들을 교육하는 어려움을 대중적인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학교 밖 대안 교육기관에 맡기는 위탁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의 프로그램과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학교 내에서 해결해보고자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운영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기존의 교육 방향과 내용과 차별되는 새로운 시도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와 지켜보는 교사 모두에게 그리고 학교 운영자에게 이전과 다른 시각과 사고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이탈되는 학생들을 타 주체에게 이관하지 않고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새로운 방법과 내용에 담아 풀어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부담 자체를 넘어 학교 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 내 대안교실이 표방하는 탁월한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기존의 교육 방법이 아닌 대안적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정규교육과정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에 부적응을 보이거나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학생을 방과 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지도를 하도록 했다. 학교와 담당교사에게는 추가적인 별도의 예산과 시간 그리고 내용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정규교육 과정 내에서 지도 대상 학생들을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교육 지도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임무와 교육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 필적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제도(절차)적, 내용적 충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이 미비하였다. 교육과정은 과정의 개설과 선택으로부터 교수학습 및 평가가 온전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온전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 해당 과목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 과목의 평가에는 응해야 하는 모순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도 온전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정당한 선택과 이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잘 조직되고 설계되어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이 운영되려면 운영 예산은 경상비로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하며, 지도 인력도 학교의 업무 분장 범위 내에서 공평하고 정상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수 교사 혹은 비정규직 인력의 소모적인 헌신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대안교육



정 남 호 | 현도정보고등학교 교사

### ◆ 공교육의 부적응뿐만이 아니라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대안교육 대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의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경직성, 획일성, 표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어 나오, 방향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렀다면, 최근의 대안교육의 대상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도화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른 일탈 및 무기력으로 그 대상이 더욱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문제를 학교 현장만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보다는 학교와 사회 전반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 학생들은 도심 외곽에 있는 비선호 인문계고등학교 또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집중되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 는 말처럼 특정 학교에 집중되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다.

중학교에서 학업에 취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제 학업성적도 하위권이라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나 어른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공부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전문 기능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라고....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이러한 고민 속에 있던 학생들 대부분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비 선호 인문계 고등학교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하지만 위에서의 말처럼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자신의 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성적으로 우위를 점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남는 학교를 선택 없이 가는 것이다.

즉, 늘 집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처음으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아침마다 도심 외곽으로 빠져 나가며 첫 번째 패배를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경쟁력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나 차별화된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서는 대안교육은 간과할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비선호 인문계고등학교나 직업교육 목적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의 문제로 학교 교육이 교육이냐? 보육이냐? 를 논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대안교육을 논할 때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차 또한 작지 않은 것이다.

◆ **대안교육의 여러 형태 중 교육현장에 가장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안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것이 학교 내 대안교실이다. 그렇다면 학교 내 대안교실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공교육 형태의 대안교육(대안학교) 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안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2년 전 개교한 공교육형태의 대안 중학교를 예로 들어본다. 대안학교 구성원은 학생 80여명(위탁학생 포함)에 교사(상근 공무원 교사 즉 상담, 사회복지, 청소년지도사 포함) 35명가량이다. 즉 35명은 교사가 8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생들 모두 기숙사 생활 그리고 교사 중 일부도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육의 결과와 만족도는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교 내 대안교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미 대안교육 이외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중 한 두 명이 추가로 대안교실 학생들을 맡아 전일 또는 반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고,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교내 당구장이나 PC방을 구축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교육 아닌 보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공교육 내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의 사례로 볼 때 이미 대안교육은 효율보다는 효율을 염두에 두고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 내 대안교실도 공교육 내 대안교육(대안학교)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 ◆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아픈 사람은 스스로 병원을 찾는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대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를 진단한다. 이후 치료과정도 정성스럽긴 마찬가지다. 의사는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치료, 주사, 약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의사와 환자의 공동 노력으로 질병을 낫게 만든다. 아마 결론적으로 볼 때 무엇이 질병을 완쾌하도록 하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의 노력이었는지? 환자의 노력이었는지? 주사였는지? 물리치료였는지? 아니면 약물이었는지....아니 어쩌면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고 어쩌면 시간이 치료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노력은 시간을 벌어 주었을 뿐 실재는 자신의 노력으로 완치했을지도....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아픔은 이와 같은 노력이 쉽지 않다. 무기력, 절망, 패배, 소외의 질병에 걸려있지만 대부분은 치료를 위해 달려오지는 않으며 내민 손마저도 매몰차게 뿌리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하나 찾아내 진단하고 치료하고 힘들지만 마지막 보루 같은 절박함으로 지치지만 무서운 질병이 교실 전체를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뒤덮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본다.

환자의 도움도, 보호자의 도움도 없는 힘든 과정! 하루 이틀로는 아니 1, 2년으로는 그 변화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힘든 노력들! 하지만 앞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라는 말처럼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의 무수하고 다양한 노력들이 오늘도 그들을 잠시나마 붙잡아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이 훗날의 약이 될지는 모른다. 단지 너무나도 절박하기에 그리고 소중하기에 가진 모든 약들을 처방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그렇다면 훗날 그 중 하나가 아니면 그로 인해 잠시 잡아 두었던 시간들로 인해 스스로 이겨내고 제 자리에 우뚝 설지 모르는 일이다.

## ◆ 2017~2018년 대안교육의 사례(본교에 한함)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15명 내외(오전수업 후 반일제)
- 기관 위탁교육(장기 과정): 3~4명 내외(3개월 이상)
- 단기(2개월 내외) 위탁과정(요리): 9명(오전 수업 후 위탁교육)
- 단기(2개월 내외) 위탁과정(미용): 4명(오전 수업 후 위탁교육)
- 단기(2개월 내외) 위탁과정(바리스타): 9명(오전 수업 후 위탁교육)
- 국립청소년수련원 '디딤센터'(경기도 용인): 25명(4박 5일 단기과정)

◆ **거부감 없이 학생들이 그 곁을 내어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동아리 활동이라는 실질적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첫발을 내딛었던 학교! 그동안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적잖게 당황한 적이 있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으리라 생각했지만 무기력했던 학생들,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학생들!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하리라 생각했던 것은 자만이자 욕심이었었던 것 같다.

한참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후, 그들과 함께 할 거리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맨 끝에 찾은 빵과 난타, 내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낯선 것이었지만 처음 시작한 그 때도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교과서 못지않게 학생들과 더불어 가르치고 배우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 주고 있다.

공교육이 획일적이고 경직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쩌면 다양한 창의적체험 활동 그리고 이러한 요소 중 하나인 동아리 활동은 교과서의 두려움과 세상 밖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하나의 동아리가 학교 현장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제 간, 선후배 간 그리고 동기들 간의 정과 학교만이 독특한 문화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다시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대안교육 형태 중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는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교육 또는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 등을 실천하며 우리 교육현장에 발전적 또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교육 속에 착근되기에는 제도적 또는 재정적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에서도 다양한 대안교육의 모델들을 제시하며 적용해 보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감, 교육현장에서의 이질감 등으로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은 차츰차츰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간극을 좁혀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본다.

◆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슬로건인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를 ‘선생님들이 웃으면 학생들이 행복합니다.’로 바꿔본다.

선생님들이 지쳤다. 학생들보다 더 지쳐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현 교실, 교육 등 많은 문제 중 하나가 이에서 비롯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명감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쳤다. 가르치는 일 이외 업무에 그리고 교육이 아닌 보육과 같은 학생들 뒷바라지에....

부모가 늘 지쳐 있다면 가정이 우울하듯, 지쳐 있는 선생님 앞에 펼쳐진 교실은, 학교는 그리고 학생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웃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늘 웃을 수 있다면 학생들은 절로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늘 웃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뒷받침 그리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자구 노력들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리고 세상의 호소와 학생들의 호소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멋진 교육 현장이 펼쳐지리라 생각된다.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균형잡힌 발전을 기대하며



고 성 혜 |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과 정책발전 방향’에 관한 발제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이나마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 등 학문적 고민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신 이종태 소장님께서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을 시작해주셔서 많이 배우게 되고, 대안교육과 교육에 관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린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제 원고를 읽어가면서 가장 크게 받은 위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고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안교육을 논할 때 항상 뒷전에서 한마디 정도 언급되거나 상당히 소외되었었기에, 발제자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일정 부분 언급해주신 것에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발제 원고에 드러난 일부 표현을 보면, 발제자께서 파악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모습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이고 대안교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역시 공교육 내 대안교육제도 중에는 가장 존재감 없어 보인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 중 대안교육의 기원과 특징 등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발제자의 글이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자리매김을 위한 표현이고 쓴 소리이며 대안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변화를 꾀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발제자께서 이해 또는 표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모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나 대안교육이 담고 있는 스펙트럼 자체가 매우 넓고, 공교육 내 대안교육 역시 다양성을 띠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 중’임을 감안할 때,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실체, 모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체성과 정책 발전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도의 실상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제자가 기술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에 관한 일부 내용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역할과 인식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 대안교육에 열정을 받치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결실이 있었다고 보는데, 각각의 대안교육 담당자에게는 절망감이나 무기력감을 줄 여지가 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목적, 즉,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통한 재적학교 복귀’에 근거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최종 목표가 학업중단 예방’이라고 명시할 수 있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로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을 최종 목표로 여기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위탁교육 방식은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의 임시변통적 해결책의 성격을 갖는다’ 위탁형의 경우 징벌적 성격의 해소~~’등 표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탁교육기관 교육 대상이 징벌이나 질병 등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사연을 지니고 있어서 지도하기 매우 힘든 것은 분명하다. 서울에 국한해 볼 때, 징벌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찾는 학생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설령 징벌로 위탁교육기관에 의뢰된다 해도 그 학생들의 변화와 패배자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피난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의 교육목표를 갖고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초기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과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었고, 기존 학교의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들어왔던 바이다. 발제자께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칭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실일지라도, 이 역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태생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것이라고 보는지, 변화를 파악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 내부에서도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반성도 하였고,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적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실상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내에 국한시켜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정을 일부 지원하고 위탁교육기관은 콘텐츠와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창기에 비해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학력인정기관으로서 숙지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연수를 제공해오고 있다. 물론 여전히 재정 지원과 연수 등은 부족한 상황이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독립성 부분에 한계가 있는 바이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멀지만, 교육청과 위탁교육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위탁교육기관 자체 노력에

대한 인정과 격려 속에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희망적인 시각으로 이 분야에 임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의 적응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와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가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오랫동안 담당해오면서 체득한 노하우가 있고 전문인력도 많이 양성되었지만,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유능한 교사들이 자리를 떠나는 불행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활동과 자랑스럽게 성장한 학생들의 사례가 많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계자간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도가 그간 이루어온 노력의 결실을 파악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개선할 점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할 바를 확실하게 추진하여 각각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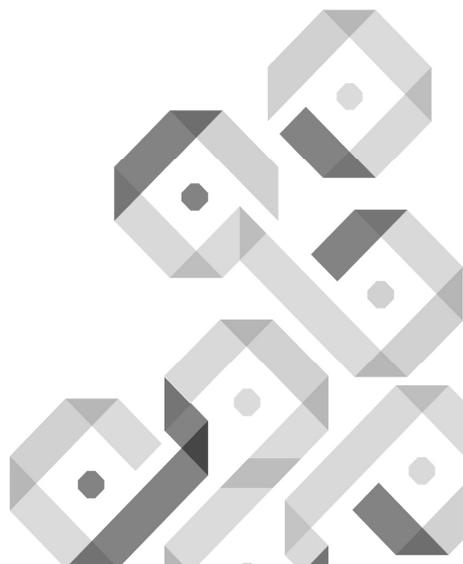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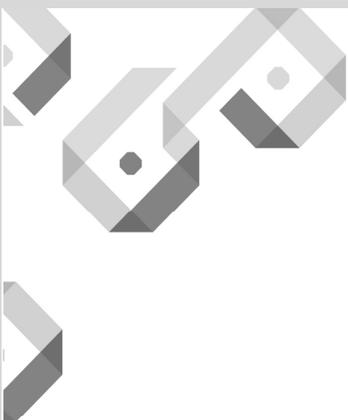
####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연수(2017~)

순번	일 시	주 제
1	2017.01.18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2	2017.02.13	창의·소통 교육도구 - 학습 다이어리를 통한 학생과의 소통 및 학습, 꿈 코칭법
3	2017.02.15	창의·소통 교육도구 - 프리즘카드를 활용한 자기표현 방법
4	2017.02.21~02.22	타 지역 대안교육기관 및 체험활동 시설 견학 -대전 가온누리센터, 법무부 솔로몬파크, 대전 해맑음센터-
5	2017.02.28	사이버 범죄 사례 대응 방법과 생활 속 법이야기
6	2017.0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7	2017.03.10	타 지역 대안교육기관 견학 -횡성 현천고
8	2017.07.25	교사가 알아야 할 학생인권
9	2018.01.24.~01.25	타 지역 대안교육기관 견학 -광주 용연학교, 무주 꿈자람 대안학교, 금산 간디학교-
10	2018.02.21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적 개입 1
11	2018.05.28	대안교육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12	2018.06.28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적 개입 2
13	2018.06.30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놀이수업



03 부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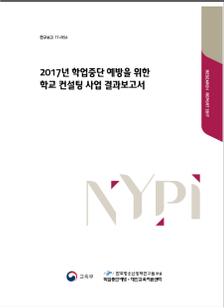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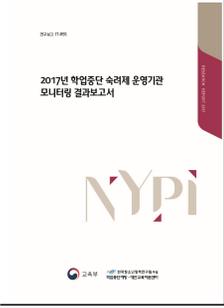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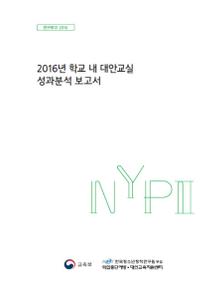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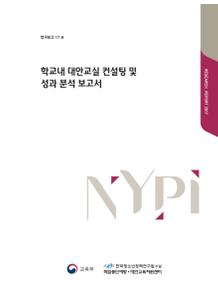
Homepage: [www.gotoschool.re.kr](http://www.gotoschool.re.kr)

## ■ 연구보고서

### 1 학업중단 예방 연구보고서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li> <li>-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li> <li>-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만족도 조사 분석</li> <li>-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성과분석 회의 결과</li> <li>- 요약 및 정책 제언</li> </ul>	2018.02.28
 <p>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li> <li>-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이해</li> <l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li> <li>- 기관별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li> <li>- 정책제언</li> </ul>	2018.02.28

2 대안교육 연구보고서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성과분석 보고서</p> <p>NYPI</p> <p>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실 책임연구관: 정진호, 연구원: 김민서</p>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성과분석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li> <li>-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컨설팅 경험 실태</li> <li>-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성과</li> <li>- 요약 및 정책제언</li> </ul>	<p>2018.05. 예정</p>
 <p>학교내 대안교실 컨설팅 및 성과 분석 보고서</p> <p>NYPI</p> <p>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실 책임연구관: 정진호, 연구원: 김민서</p>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및 성과분석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li> <li>-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li> <li>-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만족도 조사 분석</li> <li>- 요약 및 정책 제언</li> </ul>	<p>2018.02. 27</p>

■ 매뉴얼 및 프로그램집

1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및 프로그램집 (자료실)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b>길라잡이</b>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p>	<p>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교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방안</li> <li>-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및 단계별 운영방법</li> <li>-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li> </ul>	<p>2015.02.27</p>
 <p>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b>길라잡이</b> - 부록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p>	<p>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li> </ul>	<p>2015.02.27</p>
 <p>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p>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부문 25개, 학생부문 5개 사례</li> </ul>	<p>2015.04.16</p>
 <p>학교 밖 <b>진로 가이드북</b>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p>	<p>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상담·학업·취업 및 진로·경제적 지원 안내 및 관련 기관 소개</li> </ul>	<p>2015.08.25</p>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대처 방안, 관련 정책 및 위기 극복 사례 소개</li> </ul>	<p>2016.01</p>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부문 34개, 학생부문 5개, 꿈키움 멘토부문 17개, 지역사회 지원기관 종사자 부문 17개 사례</li> </ul>	<p>2016.08.26</p>
	<p>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 가이드(8개),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26개), 총 34개 프로그램 수록</li> </ul>	<p>2017.03.30</p>
	<p>2016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문 32명, 학생부문 5명, 꿈키움 멘토링 부문 18명, 지역사회 지원기관 부문 18명 사례</li> </ul>	<p>2017.08.25</p>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7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문 10개교, 학생부문 5명, 지역사회기관 종사자 등 부문 36명 사례</li> </ul>	<p>2018.02.27</p>
	<p>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교기관,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사례</li> </ul>	<p>2018.02.28</p>

2 대안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집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실의 이해</li> <li>- 대안교실 운영 가이드</li> <li>-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형</li> <li>- 대안교실 운영 사례</li> </ul>	<p>2016.03.08</p>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1개 사례</li> </ul>	<p>2016.03.08</p>
	<p>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가이드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이해</li> <li>- 진로의사결정에서의 고려 사항</li> <li>- 학교 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4개 학교 사례)</li> </ul>	<p>2016.04.22</p>
	<p>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위탁교육 기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교육 학생 이해 및 생활지도</li> <li>- 프로그램 모형</li> <li>- 학생 위·수탁절차 및 교무·회계 행정</li> <li>- 묻고 답하기</li> <li>- 부록(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례, 지역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li> </ul>	<p>2017.02.20</p>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대안교실 아이들의 별별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li> <li>- 학교 내 대안교실에 참여하고 변화된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li> </ul>	<p>2017.06.19</p>
	<p>전국 학력인정 대안학교 (각종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 둘러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학교의 의미와 현황</li> <li>- 전국 대안학교 지도</li> <li>- 대안학교 출신자를 위한 대학입학 전형의 이해</li> <li>- 대안학교 소개(초·중·고·통합)</li> </ul>	<p>2017.12.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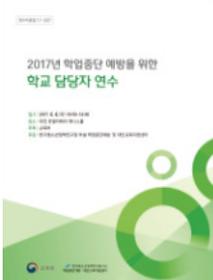
③ 꿈키움 멘토단 매뉴얼 및 프로그램집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꿈키움 멘토 수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li> <li>- 멘토링 상담·활동·튜터·면담일지, 멘토링 운영 활동계획서</li> </ul>	<p>2014.05.27</p>
	<p>꿈키움 멘토링 매뉴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키움 멘토링의 개요</li> <li>-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li> <li>- 멘토링의 실제: 운영절차 및 학교·지역사회와 관계 맺기</li> <li>- 멘토를 위한 지침</li> <li>- 꿈키움 멘토링 사례</li> </ul>	<p>2015.02</p>

■ 연수

1 학업중단 예방 연수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p>	<p>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학생 실태, 지원 및 연계 방안</li> <li>-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사례</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기법</li> </ul>	<p>2014.02.03</p>
 <p>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p>	<p>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응 방향</li> <li>-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li> <li>- 학업중단 위기 과정에 따른 상담기법</li> <li>- 학업중단 예방 운영 사례</li> </ul>	<p>2014.08.06</p>
 <p>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p>	<p>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li> <li>- 학업중단 위의원인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계 사례</li> </ul>	<p>2015.02.16</p>
 <p>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p>	<p>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li> <li>- 학업중단 위의원인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계 사례</li> </ul>	<p>2015.07.28</p>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p> <p>2015. 7. 30(11시 ~ 14시 10분)                  1. 학업중단 예방                  2. 교육                  3. 위기 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 41조 제 2항 제 2호 제 2차 개정</p>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 소개</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와 멘토링을 위한 지원 방법</li> <li>-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사례</li> <li>- 해외의 학업중단 예방 대책</li> </ul>	<p>2015.07.30</p>
 <p>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p> <p>날: 2016. 2. 16(11시 ~ 14시 10분)                  1. 학업중단 예방                  2. 교육                  3. 위기 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 41조 제 2항 제 2호 제 2차 개정</p>	<p>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꿈기움 멘토링)</li> <li>-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사례</li> <li>-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발</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li> </ul>	<p>2016.02.16</p>
 <p>2016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p> <p>날: 2016. 8. 26(11시 ~ 14시 10분)                  1. 학업중단 예방                  2. 교육                  3. 위기 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 41조 제 2항 제 2호 제 2차 개정</p>	<p>2016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2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부 주요정책 소개</li> <li>- 리더십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학교 공동체 구성</li> <li>- 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교육적 대응</li> <li>-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li> </ul>	<p>2016.08.26</p>
 <p>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p> <p>날: 2017. 4. 4(11시 ~ 14시 10분)                  1. 학업중단 예방                  2. 교육                  3. 위기 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 41조 제 2항 제 2호 제 2차 개정</p>	<p>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정책</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li> <li>- 학교가 변하니 학생도 변한다</li> <li>-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업중단 예방</li> <li>- 나이스를 활용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li> </ul>	<p>2017.04.04</p>
 <p>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p> <p>날: 2017. 4. 14(11시 ~ 14시 10분)                  1. 학업중단 예방                  2. 교육                  3. 위기 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 41조 제 2항 제 2호 제 2차 개정</p>	<p>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2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정책</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li> <li>- 교내·외 협업체계 구축 방안</li> <li>- 또 하나의 교향곡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극)</li> </ul>	<p>2017.04.14</p>

2 대안교육 연수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p>	<p>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특강]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안, 대안교육 톺아보기</li> <li>- [진로교육특강] 웃음을 활용한 진로지도, SCEP 진로교육 프로그램</li> <li>- [리더십특강]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리더십</li> <li>- 대안교육 모범프로그램(영산 성지교)</li> </ul>	<p>2014.08.22</p>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p>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li> <li>- 대안교실 구성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대안교실 운영사례</li> </ul>	<p>2015.05.22</p>
 <p>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p>	<p>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회복법: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및 동기회복 프로그램</li> <li>- 창의적 진로개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기업가정신)</li> <li>- 진로지도 사례</li> <li>-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li> </ul>	<p>2015.07.07</p>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p>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li> <li>-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li> <li>- 대안교실 운영 사례</li> </ul>	<p>2016.01.22</p>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p>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li> <li>-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li> <li>-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li> <li>-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li> </ul>	<p>2016.05.09</p>
 <p>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p>	<p>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li> <li>-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li> <li>- 동기개발 프로그램</li> <li>- 대안교육 진로탐색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 L.T.I. 프로젝트)</li> <li>- 대안교육 담당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li> </ul>	<p>2016.08.08</p>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p>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 (2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li> <li>- 대안교실 매뉴얼 소개</li> <li>-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li> <li>- 대안교실 운영 Q&amp;A</li> </ul>	<p>2017.04.22</p>
 <p>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p>	<p>2017년 대안학교장 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학교의 현재</li> <li>- 대안교육 20년의 성찰과 과제</li> <li>- 삶의 조건 변화에 따른 대안교육</li> <li>- 대안학교 유형별 분임토의(대안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논의)</li> </ul>	<p>2017.05.12</p>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p>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li> <li>- 대안교육 전문가 강연</li> <li>- 성공적인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li> <li>- 대안교실 운영 관리자를 위한 역할극</li> </ul>	<p>2017.05.22</p>
 <p>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p>	<p>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정책 소개</li> <li>- 대안교육 마인드 제고 강연</li> <li>- 위탁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li> <li>-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협력</li> <li>- 가이드북 내용 소개 및 활용 방법 안내</li> </ul>	<p>2017.08.29</p>
 <p>2017년 「대안학교(특성화고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p>	<p>2017년 대안학교 담당교원 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li> <li>- 왜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해 졌을까?</li> <li>- 우주 최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버츠프로젝트 : 학급의 기적, 미덕의 힘이다.</li> <li>- 대안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신 교수방법 소개</li> <li>-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li> </ul>	<p>2017.09.01</p>
 <p>2018년 대안학교(특성화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p>	<p>2018년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 전문가 강연</li> <li>- 교육부 정책 소개</li> <li>- 대안학교 사례발표</li> </ul>	<p>2018.05.18</p>

③ 꿈키움 멘토단 연수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 방안</li> <li>- 청소년 멘토링의 이해와 운영자의 역할</li> <li>- 멘토링 사업 기획과 운영방안</li> </ul>	<p>2014.05.27</p>
 <p>“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p> <p>2014. 10. 30(목)</p>	<p>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특강] 학업중단 청소년과 멘토링</li> <li>- [사례 발표] ‘제주도 꿈키움 멘토링’</li> </ul>	<p>2014.10.30</p>
 <p>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li> <li>- 꿈키움 멘토링과 관리자의 역할</li> <li>- 꿈키움 멘토단 운영 사례</li> </ul>	<p>2015.05.20</p>
 <p>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예방 정책 소개</li> <li>- 멘토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li> <li>- 꿈키움 멘토단 운영사례 (교육지원청, 교육청, 학교, 민간단체)</li> </ul>	<p>2016.07.15</p>

##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①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개</li> <li>-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및 실무안내</li> </ul>	2015.04.16
 <p>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발표</li> <li>-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역할 이해</li> <li>-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li> </ul>	2016.05.04
 <p>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정책 추진 방향</li> <li>- 학교 현장의 이해: 학교에서 바라는 컨설팅</li> <li>- 컨설팅 사업 개요 및 추진 방향</li> <li>- 주요 점검사항 1: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견 및 관리</li> <li>- 주요 점검사항 2: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li> <li>- 주요 점검사항 3: 학업중단 예방체제 구축</li> </ul>	2017.04.21
 <p>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li> </ul>	2018.06.05

2 대안교육 컨설팅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일시: 2015. 04. 28(수) 11:00 ~ 13:00 장소: 대안교육지원센터 2층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지원센터(가칭) (책임자: 김민정)</p>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계획 및 컨설팅 사업 소개</li> <li>-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li> </ul>	<p>2015.04.28</p>
 <p>'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일시: 2015. 06. 04(금) 14:00 ~ 17:00 장소: 대안교육지원센터 2층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지원센터(가칭) (책임자: 김민정)</p>	<p>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영역(프로그램 설계, 동기유발, 직로직업 심리검사, 대학진학·비진학자 경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해</li> <li>-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내용 및 실무안내</li> </ul>	<p>2015.06.04</p>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일시: 2016. 04. 19(수) 14:00 ~ 16:00 장소: 대안교육지원센터 2층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지원센터(가칭) (책임자: 김민정)</p>	<p>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li> <li>- 시·도별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li> <li>-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사업 소개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li> </ul>	<p>2016.04.19</p>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일시: 2017. 04. 13(수) 14:00 ~ 16:00 장소: 대안교육지원센터 2층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지원센터(가칭) (책임자: 김민정)</p>	<p>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li> <li>- 대안교실 컨설팅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역할</li> <li>- 대안교실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의 역할</li> <li>-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시뮬레이션 워크숍</li> <li>-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의 실무 안내</li> </ul>	<p>2017.04.13</p>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모니터링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p> <p>01. 2017년 워크숍 개요 02. 숙려제 운영현황 03. 모니터링 위원 역할 04.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p>	<p>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및 모니터링 사업 안내</li> <li>- 학교 현장의 숙려제 운영 상황 공유</li> <l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사례 발표</li> </ul>	2017.08.18.

■ 국제포럼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정책과 실천</p> <p>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4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Policy and Practice</p> <p>2014년 9월 25일(목) 10:00 ~ 18:00 The A Hotel Seoul, Gyeongju Hall</p>	<p>2014년 대안교육 국제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대안교육 발전 동향 및 정책현황</li> <li>- 샌즈스쿨(영국), 메트스쿨(미국), 발도르프학교(독일), 헤스테하베 자유학교(덴마크), 이우학교(한국) 등 대안교육 사례</li> </ul>	2014.09.25
 <p>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p> <p>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5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p> <p>2015년 9월 16일(수) 09:30-18:00 The A Hotel Seoul, Gyeongju Hall</p>	<p>2015년 대안교육 국제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호주, 덴마크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li> <li>- 생산적 학습(독일), 핸드온 러닝(호주), 곤잘로 가르자 독립학교(미국), 빅피처 러닝(미국), 프레네 교육(프랑스),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덴마크) 등 대안교육 사례</li> </ul>	2015.09.16

■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리플릿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학업중단 예방 리플릿</p>	<p>(알림공간)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나요?                      - 학업중단숙려제·학생지원·예방체제와 대안교육에 대한 소개</p>	
	<p>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정책</p>	<p>(자료실)통합자료실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 소개</p>	<p>2016.10.20</p>
	<p>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재적교용 리플릿)</p>	<p>(자료실)통합자료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개념                      - 위탁교육 대상 학생 선정방법                      -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 소개                      - 학생 위탁절차                      - 학생 위탁 시 유의점                      - NEIS 입력방법</p>	<p>2017.02.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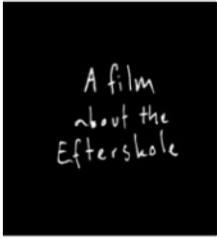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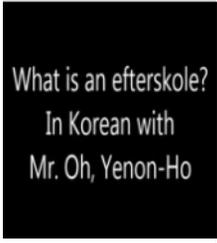
■ 영상 콘텐츠 (자료실)영상 콘텐츠)

“교육의 길을 묻다” (E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 밀알 두레학교, 간디 자유학교, 덴마크 자유학교, 독일 발도르프 학교 등 국내·외 대안학교 장·단점	44'57"
	2부 거리에서 헤매는 학교 밖 아이들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가출, 비행 등) - 학교 밖 청소년 포용 방안 모색	47'56"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샘물의 집,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양립한 일본 오사카부립 슈토쿠 학원 사례	46'42"
	4부 기रो에 선 학교 부적응 아이들	-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중암중학교의 신바람 대안교실 프로그램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48'05"
	5부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 농어촌 교육환경을 극복한 군포중, 속리산중 소개 - 다문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48'35"

“대안교육을 돌아보다” (S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학교의 현실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 다인학교 등 국내 대안학교의 특징과 덴마크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56'
	2부 대안학교의 미래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운영사례 - 덴마크(니스테드 애프터스쿨레), 프랑스(프레네 교육) 등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50'
	1부 대안학교 문제 사례	-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 등 국내 대안교육의 실제	14'28"
	2부 국내 대안학교 우수사례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우수사례 - 공립학교(웅상중) 대안교실 우수사례	12'24"
	3부 국외 대안학교 우수사례	- 덴마크, 프랑스 등 국외 대안학교 운영 우수사례	16'57"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간다” (K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경계에 선 아이들	-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현재 학업중단과 복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56'55”
	2부 세상을 향해 외치다	- 좌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56'07”
	1부 SOS 학교 밖 아이들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업중단 원인별 학생들의 이야기	11'07”
	2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번째 학교	- 서울시 친구랑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성공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제도	11'27”
	3부 학업중단자를 위한 세계의 학교	- 일본 프리스쿨 도쿄슈레, 덴마크 애프터스쿨, 미국 빅피쳐스쿨 등 국외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11'43”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소개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의 일과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	1'47”
	미국 곤잘로가르자 독립고등학교 소개	곤잘로가르자 학교는 위기학생의 수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7'01”
	Hands On Learning	국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과 비슷한 해외 사례. 팀프로젝트, 목공, 집짓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 중심의 활동 학습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성공경험을 쌓아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습득하며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4'49”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 (애니메이션)	덴마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숙학교인 에프터스콜레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	2'36"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국문)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58"

“아이들을 만나다”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아이들을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안팎의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인터뷰 형식 영상</li> <li>- 위기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발한 교내연수영상(20분)</li> <li>- 행사 시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볼 수 있는 영상(5분)</li> </ul>	20'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